제 114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4년 3월 27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1994년도 표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생활지침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 18 전화 / 517 - 7651 ~ 5 팩스 / 512 - 1225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한 주간을 근신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절제의 한 주로

3월 27일(주일)부터 4월 2일(토)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 앞에서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를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자.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때 / A. D. 29년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곳 / 베다니와 예루살렘)

① 승리의 입성(주일, 막11:1 ~ 11)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11:15 ~ 26)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11:27 ~ 12: 40)
④ 갈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⑥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 14:10, 11)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심(목요일 오후, 막14:12, 31)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 14:32 ~ 42)
⑩ 중경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13)
⑪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 14:53 ~ 72)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 22:66 ~ 71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 23:25)
⑭ 온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6 ~ 12)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15:16 ~ 41)
⑰ 무덤에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 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 ~ 47)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⑲ 부활하심(주일 새벽, 막 16:1 ~ 8)

금식일 선포

고난주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4월 1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하며 자기 부인과 절제의 생활을 실천한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할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도록 헌금한다.

특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연합으로 모여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따라서 교구별모임과 다락방 모임을 별도로 가지지 않고, 매월 첫 주에 실시하던 교사 기도회도 한 주 연기하여 4월 8일에 가지기로 했다.

부활주일

부활절 (4월 2일)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린다. 그리고 I, II, III 예배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부활 주일에는 각 교회학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저녁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 내일 개강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바른 생활을 지속하는 일에 새 힘이 될 수 있기를

오랫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제 5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내일(3월 28일)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실천적이고도 이론적인 10주간의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경말씀으로 돌아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바른 생활을 지속하는 일에 도전을 줌으로써 한국 교회에 갱신의 새 바람을 불어 넣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제 1교시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비롯,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을 주제로 국내 석학들의 이번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논문들이 발표될 제2교시를 각각 90분씩 진행한다.

초교파적으로 전국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의 이 모임을 통해 한국 교회의 강단이 갱신되어 우리 사회의 양심이 밝아지고, 국가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밝히 켜지며,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도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세미나의 진행을 위해 조직에 따른 질서있는 봉사도 필요하겠지만 동력적이고 생명력있는 세미나가 되도록 요소 요소에 자율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 고난주간 설교 ◘

십자가에 못박힌 자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46절

(마 27:27~54, 막 15:21~41, 요 19:17~30)

이 종 윤 (목사 · 당회장)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자 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1.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분리자나 거짓 메시야 또는 민중의 선동자로 잘못 알았습니다. 팔레스틴 적토박이 언덕위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십자가의 효험을 잊은 채 절망하며 원망에 빠질 때, 고통중에 있는 형제를 외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못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로 인한 우리의 독선과 핑계 그리고 불신앙과 게으름으로 진리를 가리우고 주님을 다시 못박았던 일들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무지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오늘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장 처음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도 못하고 범죄자로 사형을 받아야 하는 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함과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6, 27)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를 한 여인으로 맞이하심으로써 육신적인 관계보다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하심으로 마리아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성도가 주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정립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나아가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권자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인정보다는 크리스챤 공동체 생활에 책임있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무죄와 정당성을 거절하시고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버리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으사 하나님께 버린 바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절망과 고통, 갈등과 소외는 사라지고 죄사함과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5.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전능자의 아들이 목마르다고 외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독을 당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한 인간의 무서운 갈증을 표시한 이 처참한 외침에서 하나님되심을 포기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형벌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히4:14, 15). 주님의 대속의 은총과 그 겸비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인내함으로 믿음에서 자라며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유익을 나누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6. "다 이루었다"(요19:30)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망해버린 것같은 십자가 상에서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터무니 없는 논리요 모순 같아 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실패요 좌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러했기에 인간의 재치로 빚어진 모든 비극이 끝나게 되었으며 인생의 실패와 불행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순된 십자가의 사건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으신 모든 대속의 사업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7.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진노 아래 떨어져 간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원망의 탄식시를 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영역에 임재해 오는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이며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고 상실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생각하며 눈물만을 흘릴 수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되 옛 사람, 옛 습관, 옛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십자가 지기 ❶

성도의 신앙 본받아

이 미 순 (중등부 교사)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에 항거하던 주기철 목사는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랜 기간의 고난, 그것도 말 한마디의 타협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세대에는 신사참배와 같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극단적으로 시험하는 핍박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론을 거스리는 일, 그 때의 고독감과 격리 불안, 비웃음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일로부터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 내게 해를 끼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의 어려움. 재물의손해를 불사하고라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자아를 죽이는 일…. 이러한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장기간의 고난'에 견준다면 너무 무례한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옳은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유익하며, 장차 약속된 영광의 지극히 큼을 인함이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딘 주기철 목사의 말이다.

오늘의 삶에서 십자가 지기 ❷

고난에 동참하고자하는 의지마저도 …

허 숙 (집사 · 11교구)

체질적으로 위가 작아서인지 나는 금식에 소질이 없다. 남들은 사나흘씩 금식도 잘하고 사십일씩 아침 금식을 하며 작정기도를 한다는데 나는 금식 이야기만하면 내 신앙이 작은 것이 아니가 하는 고민아닌 고민을 하곤 했다. 그러니 해마다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괴로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해에는 금식일 전날 밤에 밥을 두 공기씩 먹어 두기도 했고, 신문에서 해 지는 시간을 보아 두었다가 초침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수저를 들기도 했으니 예수님께서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한심하게 금식을 하라더냐고 하시는 것만 같았고 내게 역시도 은혜가 안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그 때도 금식일을 앞두고 겁을 먹고 있던 터에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구원의 오묘하심을 묵상하는 동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온 몸으로 함께 느끼며, 고난 받으심을 무익하게 만든 내 생활의 잘못으로 주님을 재차 못박은 죄를 회개하니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지금쯤 예수님은, 지금쯤 예수님은 하는 생각 뿐 언제 해가 졌는지, 배고픔도 잊은 채 하루를 보냈었다.

무엇을 내 뜻대로 하랴. 예수님을 기념하는 하루 해의 금식조차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내가.

고난주간의 묵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분은 태어나셨다 (요1:14; 3:3)
- 우리에게 천상에 집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분에게는 집이 없었다 (마8:20; 요14:2)
-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그 분은 가난해 지셨다 (고후8:9; 약2:5)
-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은 종이 되셨다 (빌2:7; 갈4:6, 7)
-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분은 굶주리셨다 (마4:2; 요6:50)
-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분은 목마르셨다 (요19:28; 사12:3)
-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분은 곤고하셨다 (요4:6; 마11:29)
-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 분은 헐벗으셧다 (마27:28; 고후5;4)
-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분은 버림을 받으셨다 (마27:46; 히13:5)
-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그 분은 슬퍼하셨다 (사53:3 ~ 5; 빌4:4)
-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분은 구속당하셨다 (마27:2; 요8:32 ~ 36)
- 우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분은 죄 삼음을 당하셨다 (고후5:21)
-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분은 죽임을 당하셨다 (요19:33; 요5:24, 25)
-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 분은 다시 내려 올 것이다 (살전4:16, 17)

◆ 성찬의 의미와 바른 참여 자세에 대하여 ◆

I. 성찬의 의미

웨스터 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주의 성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

①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케 함이요

②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요

③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고

④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며

⑤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자

⑥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이와 같이 성찬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성찬 거행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실하게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II. 성찬에 임할 때의 자세

① 우리의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고전11:28, 31).

②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본다 (고후 13;5).

③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한다 (고전 5:8).

④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간구한다 (눅 10:27).

성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실로 큰 것이다. 성찬은 주님의 권위(명령)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주님 어찌 우시나이까

햇빛 찬란한 이 봄날에 주님의 눈물로 마음을 적시며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않게 될 미래의 비극을 예견하시면서 망해버릴 조국의 비참함을 눈물로 보여주시던 주님께서 오늘은 어이 울고 계십니까. 사랑하던 이들의 배신과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치욕과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거룩하고 위대하게 역겨움 없이 받으시던 주님을 무엇이 그토록 노엽게 하였기에 주님, 슬픈 눈물을 또 한 번 흘리고 계십니까.

민족의 지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둠을 비추는 제단의 타오르던 횃불조차 희미해져 가는 이 민족 사회를 바라보면서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울어 볼 때가 되었건만 흐느낌이 없는 이 민족을 한하시고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까. 마천루의 높은 빌딩 숲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발전이요 부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민족의 잘못된 방향설정을 보시고 닥쳐올 재난이 안타까와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껍질만 남아 있는 생명없는 조개껍질처럼 피와 뼈와 살 대신 쓸모없는 지푸라기로 가득 채워진 허수아비 같은 현대인들이 구르는 톱니바퀴에 끼어서 자신도 모르게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없이 존재하는 모습이 서러워 울고 계신 것입니까. 위선과 거짓과 술수와 미련함을 목숨을 위한 양식으로 삼는 저주받을 인생들이 가엾어 측은의 심정으로 울고 계신 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은 주님 때문에 우셔야 할 이유도 없고 처지도 아니시거늘 분명 소돔같고 고모라같이 죄와 오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악된 현실이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의 편편함을 용서하시고 바르고 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엎드린 작은 밀알들을 보옵소서.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크게 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한 눈물을, 책임있는 삶의 결단과 각성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대신 우리가 울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은 몸되신 교회의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사이다.

목회자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월 3일 (부활 주일) 수원지역교회 연합회 주최 부활절 새벽 연합집회에서 설교한다.

목회자세미나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

= 가능한 시간에 잠깐씩 오셔서 도우셔도 큰 힘이 됩니다.=

* **식사와 간식준비, 배식** - 김밥, 컵라면, 빵, 차 준비와 대접.
* 차량안내 - 정문과 지하 차고 등에서 차량 유도, 주차 안내
* 동선안내, 좌석안내
* 접수, 명찰 배부 - 등록, 출석 점검, 명찰 배부.
* 테이프, 책 보급 - 설교테이프와 서적 판매 및 관리
* 유인물 배부 - 당일의 교재와 주보 「순례자」 등 배부
* 음향조정 - 마이크 설치, 녹음
* 강의 전, 강의 후 - 의자와 탁자 배열, 강의실 정리, 정돈.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임원 선출 목회자세미나 4학기를 모두 수료한 108명의 전국 목회자들은 교회갱신과 성장에 협력하기 위해 동문회를 구성하고 지난 21일(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문회를 대표할 임원을 선출하였다.

내 죽음의 죽음되신 님에게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내 생명의 찬송되신 님이여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 범사에 감사되신 님이여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소망하게 하소서
내 순례 길에 소망되신 님이여
오오,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 고통의 기도되신 님이여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게 하소서
내 허물의 용서되신 님이시여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내 오만의 종이되신 님이여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 죄인의 사랑되신 님이여
아아, 죽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죽게 하소서
내 죽음의 죽음되신 님이시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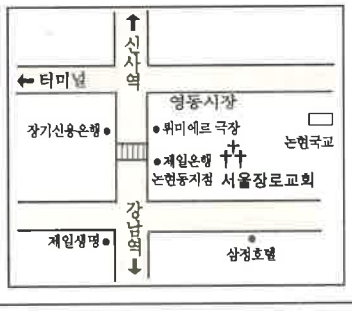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 갱신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남은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4.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지켜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